



그들과 양지를 넘나드는 땅끝이웃

지난 설날 연휴 전, 논산에서 50여 명의 미등록외국인(불법 체류자) 단속이 벌어졌다. 단속의 경위에 대하여 법무부 관계자는 인근 동종 사업체에서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등록 외국인의 숫자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현재 41만 명을 넘어섰다. 이대로 두면 신규 노동자 유입이 어려워지기엔 어쩔 수 없는 단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지만, 이러한 소식은 추운 겨울 우리의 마음을 더욱 움츠리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본 이슈에 관해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KIMA)에서는 온라인상으로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국내에서 태국 이주민을 섬기고 있는 홍광표 목사(안산 새생명 태국인교회)는 교회가 미등록외국인에 대해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목사는 이에 "불법 체류를 수용하고 장려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불법 체류의 상황에 있는 자들을 향해 위로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상록 목사(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상임이사·상명대학교 이민통합전공 교수)는 "교회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신분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

하고 이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주민이 체류기간을 잘 지키도록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목사는 이주민선교 관련자들은 복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안에서도 자유하고 결핍이 없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신 목사는 또한, 정부가 현재 외국인 대상 일 년에 두 번씩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에, 이주민이 이 제도를 활용하면 다시 합법의 신분으로 재입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분명한 국가의 정책이자 약속"이라며, "만약 재입국 비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미등록외국인이 너무 많아 쿼터제에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목사는 이에 "사역자들은 이주민이 잠재적으로 미등록외국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교육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에서는 설날을 맞이하여 평택이주민연합회(회장 이민기 목사) 주관으로 캄보디아·네팔·인도네시아·중국·나이지리아·카메룬·파키스탄 등

다국적 이주민 235명이 참석하는 이주민 잔치가 열렸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이지 못했던 이주민들이 행사를 통해 다시 모이면서 기쁨의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이다. 이민기 목사는 "지금까지의 연합 잔치나 행사는 평택 기쁜교회가 음식과 필요물품 등을 지원하였는데, 이번 행사는 이주민들이 직접 요리하고 나누면서 이주민 주도의 행사가 되어 더욱 새롭고 앞으로가 기대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목사는 특히, 이주민들이 현금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자족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본 행사에서는 평택이주민연합회에 속한 레인보우 다문화 한국어학교 학생 중 최근 사고를 당한 르완다 국적의 학생을 위해 기금을 모아 수술비를 지원하는 일도 있었다. 이 목사는 "이주민들의 나눔을 통해 감동적이고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며, "이주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

안양에서는 송탄·안성·안산에서 거주 중인 아프리카 이주민들(Blessed Diaspora Fellowship)이 모여 설 연휴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회를 가졌

다. 토고 출신의 이주노동자 에뎀 형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나누며 어렵고 힘든 이주민의 삶을 믿음의 능력으로 돌파하자고 기도회를 이끌었다. 또한, 카메룬 출신의 존 봉고 목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국내에 거하는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본 기도회는 설 연휴에 모든 이주민을 축복하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응원하는 또 하나의 잔치로 이어졌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은 이제 한인들만의 명절이 아니다. 한국에 온 각국의 이주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날이 된 것이다. 동시에, 설날 전후로 이주민에게 명암이 엇갈리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본지는 이주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히 전해지길 소망하며, 최근 디아스포라 사역 이슈를 이번 호에 담아보았다.

안산양무리교회의 이주민 동원사역(Revitalizing Ministry)



안산양무리교회 담임

글

김희창 목사

선교지로의 부르심

봄(春)은 한자로 땅이 햇볕을 받아 싹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마음이 기뻐 춤을 춘다고 해서 소리를 '춘'이라 했습니다. 저는 스물두 살 되던 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흔셋의 나이에 안산시 고잔동에 양무리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상가 4층에 40평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위로 예배하고 안으로 사랑하며 밖으로 선교하여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2011년 12월 23일 저녁, 양무리교회는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해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서른 명이 모여 포크댄스를 즐기며 준비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파티를 잘 마치고 성탄절로 나아가는데, 웬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저의 입은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고후 8:12)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설립일과 성탄절은 전혀 다르게 기획되었습니다. 빈방이 없어 외양간 구유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찾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교회 가까이 있는 외

국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미 교회에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중국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통해 이주외국인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교회 옆에 있는 나이지리아 형제들을 찾아가 필요를 묻자,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한 난방비를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내와 저는 다시 교회에서 300m쯤 떨어진 곳에 있던 태국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상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3층에서는 가정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장애를 가진 태국인 어머니와 어린 딸이 있었는데, 아이의 학원비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침내 양무리교회는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즐겁게 준비하고 주변의 교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외국인과의 이주민교회를 초청해 온종일 쉬며 성탄절을 축하하는 'One day Live Cafe'를 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스무 명 남짓, 그나마도 어린아이들이 절반인 교회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성경을 읽던 중,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주목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종일 이 구절을 암송하고 주장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교인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은 후, 마침내 첫 번째 '안산 이주외국인을 위한 하루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One Day Live Cafe

2012년 10월부터 두 달간 준비한 하루차집이었습니다. 12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의 라이브 카페가 진행되었습니다. 찬양과 연주와 태권도까지 준비하여 총 일곱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성도들이 온종일 안내와 음식 준비, 서빙, 진행, 정리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기적 같은 하루차집을 마치고, 오전 원짜리 티켓을 팔아 모인 금액이 백칠십만 원이었습니다. 재료비와 준비비 3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나이지리아교회와 태국인교회 그리고 중국 가정에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은 벌써부터 내년 하루차집을 더 잘 준비하자는 얘기로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양무리교회의 하루차집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 교회가 늘어나고 모금액이 배가되어 갔습니다. 저희는 장로교 합동 측이지만, 감리교침례교·성결교·순복음 등 교단을 초월해 뜻을 같이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하루차집은 어느 해보다도 풍성했습니다. 스무 개의 이주민교회와 스물다섯 개의 한국인교회, 모두 마흔다섯 교회가 맡은 시간에 자신들의 찬양과 연주와 공연으로 라이브 카페를 섬겨주었습니다. 모금액은 1400만 원을 넘었고, 서른 분의 봉사자와 많은 물품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20곳의 교회를 지원하고 10명의 선교사님과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2020년과 2021년은 하루차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주민교회를 생각하여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모금했을 때, 여전히 기쁘게 참여하고 돕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월

세가 부담되는 이주민교회를 위해 예배장소를 제공하겠다는 교회도 두 교회나 있었고, 이주민교회를 위해 매월 작정 헌금을 하겠다는 권사님과 후원할 교회를 새롭게 연결해 달라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과 참여 교회들을 모두 얘기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산에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 70개 이상의 이주외국인 예배처가 있습니다. 중국(조선족)교회가 20곳, 러시아교회가 10곳이며 다음으로는 나이지리아·카메룬·몽골·필리핀·태국·네팔·방글라데시·베트남·스리랑카·파키스탄·캄보디아·미얀마·인도네시아와 영어권 연합 예배들이 있습니다. 안산역을 포함한 원곡동에만 35개의 이주민교회가 있고, 무슬림 사원을 비롯해 세계의 다양한 종교 예배처와 각종 이단교회가 15개나 들어와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양무리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도시 안산에서 이주민 동원사역(Revitalizing Ministry)을 통해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안산의 이주민교회를 돕는 일에 멀리 일산, 부천, 서울과 안양에서, 그리고 더 멀리 원주와 대구, 천안에서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주시는 보상은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이주민교회와 친구 되기

우리가 이주민교회와 어울리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언어 준비입니다. 저희는 학생부와 청년부가 중심인지라 개척 초기부터 주보 한편에 그날의 암송 구절을 영어와 한자로 색깔을 입혀 표



FEED THE CHILDREN®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기했습니다. 또 오후 예배시간에는 영어 찬양을 배우고, 배운 것은 교회 카페에 올려 복습합니다. 둘째는 환대(歡待, 후한 대접, hospitality)입니다. 독일 정부가 독일 내 무슬림과 난민의 필요를 조사한 결과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독일 가정에 초대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양무리교회는 정기적으로 이주민 사역자들을 교회와 가정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연합에 배와 '섞임'입니다. 여기에는 작은 교회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영어권 연합, 카메룬, 우즈베크 고려인, 중국, 태국 등의 교회와 오후

예배를 연합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이란, 인도, 우간다, 파키스탄, 러시아 가정을 초대하거나 그들 가정을 방문하여 교제하는 섬임을 가졌습니다. 넷째는 식사와 선물하는 것입니다. 양무리교회는 처음에 연말과 연초에만 이주민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주민을 섬기기 위한 통장과 카드를 따로 만들어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꾸준히 이주민과 사역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때를 따라 계절 과일과 깎깎 선물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와 한글 교실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영어교실을 하다가 마을 복지관에서 한글교실 봉사자 모임을

보고 신청했습니다. 대상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엄마들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만나 한글을 가르치며 자녀교육과 한국생활에 관해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합니다.

Friendship First, 친구 됨이 먼저다!

2022년 1월 20일부터 양무리교회는 6주간 안산 무슬림전도학교 '프렌드십 퍼스트'를 열었습니다. 손님에서 이웃으로, 우정에서 복음으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평범한 무슬림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이미 안산과 국

내에 많은 무슬림이 와 있지만,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며 무슬림 친구를 한 명이라도 사귀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당신이 우리 이웃이라는 것에 기쁩니다. (No matter where you are from, we're glad you're our neighbor.)" 주 예수님, 우리가 무슬림 국가로 가지는 못하지만, 안산에 온 무슬림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슬림을 위해 죽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가까이에 살고있는 무슬림의 친구라도 되게 하소서!

NCOWE 2023 세계기독교 시대의 한국선교 (1)



미션파트너스
NCOWE 2023 프로그램위원장

글

한철호 목사

세계기독교 시대와 한국선교

2023년 6월 13~16일에 열리는 제8차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가 전략회의인 NCOWE(National Consultation On World Evangelization)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 세계선교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서구 크리스텐덤(Christendom) 시대에서 탈식민지(post-colonial), 탈근대(post-modern), 탈서구(post-Western, post-Christendom) 시대를 거쳐 세계기독교(World Christianity/Global Christianity) 시대로 옮겨가면서, 세계교회의 선교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과거 선교지(mission field)였던 아시아-아프리카-남미(global south & global east)의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세계선교 세력(mission force)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제까지의 서구 중심의 선교 시대를 마감하고 세계기독교 시대의 선교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제까지 기독교 중심이던 서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선교는 서구의 일방적인 주도에서 벗어나 다중심적(polycentric)이고 쌍방향적이며 전 방향(all-direction)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총체적(Integral)이고 통합적(Wholistic)으로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준 가장 큰 깨달음은 지역성(Local)의 중요성이다. 크리스텐덤 시대의 선교가 외부인 중심이었다면, 팬데믹 이후 세계기독교 시대의 선교는 내부인(Indigenous)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제 자립, 자치, 자전을 넘어서서 내부인들이 중심이 되어(Centering local), 그들에 의한 자신화(self-theologizing)가 이루어지고 자신의 문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

도를 따르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과 이를 외부자가 돕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앞으로의 선교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요청하고 있다. 서구선교 흐름의 마지막 시대에 시작하여 이제까지 서구 크리스텐덤(Christendom)방식의 선교에 참여해 온 한국선교는 새롭게 부상하는 세계기독교(World Christianity)와 호흡을 같이하기 위해 새로운 선교로 전환되어야 한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한국선교가 한국교회의 침체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가 본질적 변화를 모색해야 하듯이 한국선교도 그래야 한다. 이것을 위해 지난 35년간 엄청난 속도로 확장해 온 한국선교를 되짚어 볼 때(Re-think),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선물을 한국교회에 허락한 것을 감사하면서 동시에 세계기독교(World Christianity)라는 새로운 시대적 정황 속에서 한국선교는 무엇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Reflect) 돌이키고(Repent) 새롭게 하여(Rebuild) 다시 활성화(Revive)할 것인가를 논의해야만 하는 절박한 시점에 서 있다. 좋은 교회로부터 좋은 선교가 시작된다. 동시에 좋은 선교가 좋은 교회를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선교를 모색하고 실현해 내는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건강성도 회복될 것이다.

새로운 표준의 제시는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가능하다. 새로운 시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다보고 회개를 촉구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선지자들처럼, 현재의 한국선교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다보고 회개를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선지자적 시도가 필요하다. 선지자적 메시지는 인간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에게 절제된 회개와 말씀을 듣는 겸손함과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NCOWE 2023를 바라다보는 시각이 되어야 한다.

To convene a catalytic gathering and conversation among leading scholars and practitioners of diaspora missions of Asians worldwide and in Asia.

A CONSULTATION ON DASPORA MISSIONS IN AND BEYOND ASIA

Theme : Asians in Diaspora and Diasporas in Asia

Date : August 1 (Tuesday 2:00PM) - August 5 (Saturday 2:00PM), 2023.

Venue : Shalom Hotel, Jeju Island, South Korea

Objectives:

- Learn and discuss about mission by, through and among Asian diasporas Worldwide.
- Assess the impact of migration to, within and from Asia.
- Explore new horizons for diaspora missions in the contexts of economic migrants, international students, family migrants, internal migrants and forcibly displaced peoples.
- Create a forum for scholars and practitioners to network and collaborate.
- Compile proceedings of the consultation into a future publication.

Sponsored by:



GLOBAL DIASPORA NETWORK



TORCHREINITY



Korean Diaspora Network

Save The Date

August 1 - August 5, 2023
Await Registration Details

Visit www.global-diaspora.com for more details

GMS(Global Mission Society)의 국내 이주민선교

GMS 원로 선교사
월드 네이버 대표



허명호 선교사

글

GMS(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는 총회의 선교 기구로서 본 교단의 선교를 위임받아 1998년 9월 총회 때 설립되어 올해로 25년째 되는 교단 독립 선교 단체이다. 현재 현역 GSM 파송 국내 이주민선교사(지부회원)는 43유닛(16가정+싱글 11명)이며, 북한 관련 한국 지부원은 10유닛 20명, 중국 관련 14유닛 23명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내 병원 철수 후 당시 병원 중임자 등 몇분도 묵묵히 주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주민선교사를 포함해서는 97 국가에 1,433유닛 2,577명이 사역 중이다. 예정 합동 총회 산하에는 이주민 선교 부서를 두어 직접 목양하는 120개 이상의 지역교회가 있다.

GMS 설립 이전에는 총회외국인선교 협의회가 1997년 10월 강승삼(현 원로) 선교사 지도하에 창립되어, 지역교회의 외국인사역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듬해 2월에는, 남양주 평내교회(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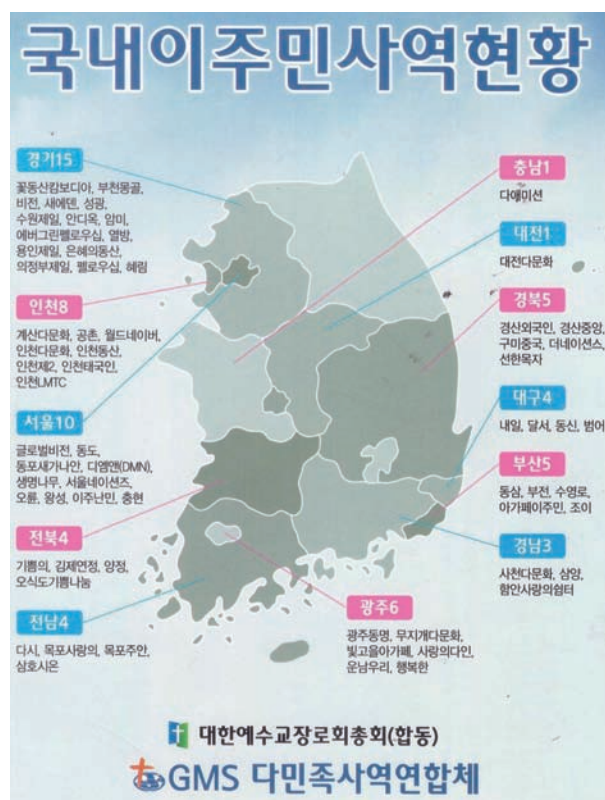
수 목사)의 주 후원으로 총회에서 김영애 선교사(암미선교회)를 총회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국내 이주민선교사 파송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주민선교 1박 2일 세미나가 천산중앙교회에서 열려 32명이 참석하기도 했다(외선협 통권 2권). GSM이 그 해 9월 설립되었으며, 99년 1월 GSM 본부 이주민사역 담당자가 총회외국인선교 협의회와 합의를 맺어 2001년 GSM 외국인선교지부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지부 신설 후, 총회 헌법에 한계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역교회의 외국인사역 담당 부목사 등은 총회 헌법상 GSM 파송 이주민선교사가 되려면 노회 행정에 의해 교회 사임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이중 존속은 불가한 점이다. 지역교회와 이주민선교사 간의 동역은 자유지만, 이주민사역 관련 회의 규칙에는 '준 회원'이란 용어가 불가피하게 삽입되었다. 그러나 같은 교단 이주민선교사와 GSM 선교사 정회원 간에는 평화로이 한계를 넘어 동역 중이다.

2019년 초에는 필자 외 35명 총회원이 설립청원서를 GSM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받아 그해 5월 GSM 다민족사역 연합체가 창립되었다. GSM 다민족사역 연합체는 이주민선교사와 지역교회 이주민 담당 부교역자, 또는 평

신도 사역자가 자유로 입회하는 절충 규정이 적용되었다. 당시 GSM 이사회 내 국내 외국인 지역 위원장 이상복 목사(광주동명교회 당회장)가 당연직 다민족사역 연합체 이사를 수행하고, 선교사인 필자는 실행위원장 자격으로 이주민사역을 하는 68개 처를 결성하였으며 이는 현재 GSM 이주민선교 연합회(상임대표 윤대진 선교사)이다.

교단 내 이주민사역 출판 현황으로는 △지부와 총신선교대학원 주최 '이주민사역의 현재와 미래' 포럼 단행본(2013) △〈이주민사역 숙련의 길잡이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이주민사역 훈련원/GMS LMTC) △〈우리의 이웃인가?〉(GM넷, 이슬람 현장 보고) △허명호·김현진 공저 〈다민족 복음화는 에클레시아 공동체의 회복으로〉 △21명 공저 〈이주민사역과 한국교회〉(2021) 등 5권(83명의 저자) △강창섭 저 〈선교학 연구 방법론(근거 이론 활용, Ph. D.)〉 및 〈유학생 선교 방법론〉



△한동훈 저 〈중국선교 전략〉 △주성종 저 〈북녘 선교 연구 방법론〉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주민사역을 기존의 집단 중심의 사역 방안 외에도, 삶 속에서 만인 '성도' 제사장(벧전 2:9) 차원의 2인 소규모 팀 사역 방식의 보편화가 본 교단 11,262 지역교회에 시급한 과제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본지는 이번 호부터 매월 교단별 이주민선교 관련 배경과 현황을 게재한다. 3월호는 기성 총회가 실린다.

세계 최초 AWMJ 200번째 나라 선교 기념대회

AWMJ 사무총장
성결대학교 교수
로잔연구교수회 회장
이주민방송 대표
(사)KWMA 협동총무



구성모 교수

글

AWMJ선교회(Antioch World Missionary Journey)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따라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국가 선교사역을 2003년 12월 3일부터 시작하여, 다가오는 2023년 3월 10일에 200번째 사역을 진행하게 된다. 대장정을 눈앞에 두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각 대륙과 국가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의 발견이었다. 또한 기독교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제 막 시작된 국가도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정체 또는 쇠퇴하는 경향의 국가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역사로만 존재하다 유

명무실하여 기독교의 모습을 상실하는 국가도 있었다. 이러한 기독교의 흥망성쇠를 목격하면서, '지금의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질문을 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가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국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목회자, 한인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다. AWMJ의 선교사역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충격과 과제를 사역자들에게 던져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세계 최초 200번째 국가 선교 대회는 그동안 AWMJ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돌아보고, 향후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기획되고 있다.

AWMJ는 이번 기념대회에서 지역

교회의 목사로 사역하던 신화석 목사를 초청하여 200번째 국가까지 사역을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에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회를 통해 사역 중 죽음의 위기를 비롯한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보호하심의 은혜와 축복을 찬양하고자 한다. 또한, 전 세계의 기독교 현실을 목격하는 가운데 감동과 고통을 동시에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감당한 신화석 목사와 선교팀원 및 각 대륙 디렉터, 국가별 코디네이터 선교사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결코 크지 않은 지역교회와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이 일을 감당하여 온 헌신을 격려하려고 한다.

이번 대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필요한 곳에 보내시고 그의 역사를 계속 이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취를 살펴보고 정리하여 '기독교가 기독교 되

도록' AWMJ를 사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다.

200번째 국가 선교대회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시작된 곳인 팔레스타인에서 개최된다. 일정은 두 번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2023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베들레헴 바이블칼리지·베들레헴 한국문화센터·세인트 폴호텔에서 진행된다. 대회 강사는 한국에서 주 강사인 신화석 목사(AWMJ 대표)를 비롯한 최남수 목사(세계중보기도자 대표), 비숍 Efraim Tendero(-Global Ambassador, WEA), 북미미아스포라신학회 Tereso Casiño 박사, 동유럽 Hervin Fusherkati 목사, 베들레헴 바이블칼리지 Jack Sara 총장이다. 3월 13일부터 17일까지는 초기 신앙의 흔적을 찾아가는 '성경의 땅' 탐방이 진행되며, AWMJ가 추구하는 성경적 영성을 무장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SEM 선교회의 자원봉사 기반 선교사역



SEM 선교회 회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
전공책임교수
늘사랑교회 안수집사

우익전 회장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이사야 61:6).

SEM 선교회는 1995년에 평신도 전문인 선교 훈련(GPTI)을 받은 연구원들이 당시 연구단지에 방문해 있던 외국인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면서 시작된 선교단체입니다. SEM 사역은 초기에 대덕단지 내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과 영어 성경공부 위주로 진행되다가, 점차 지역 대학 중심으로 외국인유학생들이 유치되고 유학생 사역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한남대학교를 기점으로 대전대·배재대·목원대 등 캠퍼스에서 무료 주간 한국어 교실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세종의 KDIS 국제대학원 유학생을 위한 수업반도 개설하였습니다.

'SEM'의 기존 의미는 'Scientists and Engineers Ministry'였지만, 무슬림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을 만나기 위하여 'Ministry'를 'Member'로 바꾸고, 현재의 공식법인(사)국제과학기술자협력단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함께 유입된 많은 근로자 중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교도소에 수감된 외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사역이 필요해졌고, 2002년 대전 교도소 한국어반을 기점으로 천안

남자외국인 교도소·청주 여자외국인 교도소와 MOU를 체결하여 국내 외국인 재소자들을 섬기는 일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말리아 해적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재소자들이 참석하고,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패턴슨이 지금은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등 본 사역은 SEM의 커다란 기쁨이자 열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특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원봉사 형태로 헌신자들이 모여들었고, 외국인 과학자 가족을 대상으로 바자회·문화축제 등을 개최하여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나가자 관계 전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SEM은 독특한 자원봉사 기반 선교단체로 자리매김하여 현재는 1365 자원봉사 시스템을 통하여 백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였고,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의 정착과 지원을 도우며 대전·충청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으로 맺어진 긴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의 통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기반의 선교 방식을 계기로, 2017년 미국 샬럿에서 열린 기독교 로잔운동의 이주민사역 유학생 분과모임에 초청받아 세계의 다양한 유학생 선교단체들과 SEM 사역을 나누며 협력 네트워크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SEM 사역의 대상인 유학생들과 과학자들은 귀국 후 대부분 각 나라의 연구원·대학교수·정부 관료 등 선교지에서 일반 선교사들이 만나기 어려운 고급 인재로 성장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로 세워지기에, SEM 사역은 장기적 선교 전략에서 매우 중



▲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SEM 출신 귀국자 모임에 참석한 라오스 젊은이들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8년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SEM 출신 귀국자 대상 홍보행사를 가졌을 때 현지 교수를 비롯한 다수 귀국자들이 참석하였는데, 이때 유명한 아이돌 연예인으로 성장한 대전대학교 출신의 한 유학생이 당시 태국에서 활동하다가 비행기로 직접 날아와 모임의 사회를 보았고, 이를 보기 위해 많은 라오스 젊은이들이 행사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SEM 사역 대상자들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어 수업과 문화 행사교류에 집중하던 활동은 점차 과학캠프·아웃도어·외국인 커피 바리스타 교육·외국인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었고, 코로나19 기간에는 온라인 한국어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사역의 형태가 시대적 변화를 따라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연구원 중심이던 사역이 지금은 선교 훈련생·사역자·귀국 선교사·주부·대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확대되었고, 회원 대다수가 지역교회를 성실히 섬기는 성도들이기에 지역교회와의 긴밀한 협력 및 연계는 SEM 사역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면서 시작된 SEM 사역은 자연스럽게 지역 내 폭넓은 외국인 정착 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기반을 선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공부하던 외국인유학생이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학생 동역 단체인 ISF 선교회에 연결시켜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양육하도록 하고, 최근에는 GMP 선교회와 WEC 선교회 같은 복음적 선교단체와의 협력 사역을 기획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효과적으로 이루고 나가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지 생각한다면 복음에 헌신된 성도·지역교회·선교단체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와 봉사, 두 개의 사명을 하나로 아우르며 하늘의 온전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SEM 선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세계 각지에서 온 KDIS 국제대학원 유학생들



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

이주민선교훈련학교 MMTS는
Lausanne Diaspora Global Classroom의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2월 27일~5월 29일
[매주 월요일 저녁 7:20~9:30]

장 소 : ZOOM 온라인
훈련비 : 15만원 (위대선교회 하나은행 464-910007-22804)
문 의 : 최현주선교사 010.4688.3816
하소미선교사 010.3335.2449
등록링크 : <https://forms.gle/Q91oqKeosC1HrGbY8>
주관 : 위대국제선교회

협력기관 : GDN NEXTMOV, CDM, 주안대학교, 디아스포라신문, 한국국제선교협력회, Kima

이주민선교학교 클래식 24기 모집

강	날짜	주제
1강	2/27	세계 선교의 흐름과 이해
2강	3/6	한국 이주민 선교의 역사와 현황
3강	3/13	성경 속의 이주민
4강	3/20	정부의 이주민 정책과 법, 그 활용방안
5강	3/27	비교종교와 타문화
6강	4/3	국내 무슬림 선교
7강	4/10	이주민 선교사역자의 자질과 리더십
8강	4/17	이주민 선교사역의 5단계
9강	4/24	유학생 선교
10강	5/1	이주근로자 선교
11강	5/8	이주민 가정 및 2세 선교
12강	5/15	탈북민선교
13강	5/22	이주민에게 듣는다
14강	5/29	연구발표 및 수료식

디아스포라 선교학: 난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략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남수단,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가 직면한 최근의 위기로 인해 안전한 곳으로 향하는 난민의 물결이 일고 있다. 동시에 생각보다 많은 나라가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했다. 난민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면 이러한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디아스포라 신문은 정기적으로 <디아스포라 선교학> 본문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본서 12장의 저자이자 독일 카를스루에(Karlsruhe) 지역 난민캠프에서 난민사역을 하는 비말 박사(Peter Vimalasekaran)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점점 더 늘어나는 난민의 숫자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절박한 이들을 돌보시는가? 교회는 난민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비말 박사는 난민을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벗어나 보호를 받기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나야만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경말씀을 이해하면 난민사역의 성경적 근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히브리어 "rwg(gwr)"는 '이방인으로 체류하

다 난민이 되거나, 이방인으로 머물거나 멈춘다'는 의미이다. 히브리어 명사 "reG(ger)"는 구약성경에서 주로 "임시 체류자(sojourner)", 또는 "외국인(외계인)"으로 번역된다. 신약성경과 70인 역에서는 그리스어 "paroikos"가 히브리어 "gēr"를 번역하는 데 사용되며, 임시 체류자나 외국인 거주자의 의미로 사용된다.

에덴동산을 떠나야 했던 아담과 하와의 곤경(창 1~3장), "유리하는 자"가 된 가인의 이야기(창 4:12~16), 그리고 아브라함-이삭-야곱-요셉-모세-다윗-로트를 비롯해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이야기는 난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외에도 신약성경에는 난민의 여러 사례가 담겨있다. 마태복음 2장 13~15절에는 이집트로 피난을 간 예수와 그의 부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8장 1절, 4절과 11장 19~21절에는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흩어진" 이야기가 적혀 있다.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paroikoi"란 단어를 사용하여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이자 난민임을 말하고 있다. 이 성경적 예시들은 난민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난민사역은 총체적 사역이다. 총체적 사역은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사람의 몸과 영혼을 다 섬기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인간을 총체적으로 대우하셨던 예수께서는 인간 본질의 어떤 면도 무시하지 말 것을 교회에 요구하셨다.

우리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사역방법을 피해야 한다. 먼저, 복음을 제시

하지 않고 섬기기만 하는 방법과, 다음으로 복음은 제시하지만 난민의 즉각적인 필요를 간과하는 방식이다. 난민은 절박하다. 곤경에 처한 난민을 도우려면 이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해주고 영혼을 돌보아야만 한다.

다른 일도 그렇듯이, 난민사역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 난민과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난민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필수적이다. 난민의 기원, 갈등의 원인, 그들 집단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난민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인류학적 정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효과적으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난민들과 잘 연계할 수 있게 한다. 문화지식과 사회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난민에게 다가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난민을 봉사하고자 할 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대부분의 난민은 무료 구호물품과 지원만을 바라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의 기술로 꿈을 이룰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난민을 희생자로만 보고 난민에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비말 박사는 난민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난민은 모든 가능성에 도전하여 결국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간다. 또한 강한 의지로 상황에 적응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과도 대화할 정도로 유연하다. 난민들은 풍부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배울 점이 많다. 때문에 난민이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장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난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난민여성과 어린이들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난민여성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 많은 난민여성이 성적 학대를 당하고 아무 권리가 없는 존재로 취급된다. 난민어린이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난민여성과 어린이를 특별히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들을 위한 전략을 세워 섬겨야 한다.

룻기 2:1~17에서 룻과 나오미가 궁핍한 상황 가운데 생존할 수 있던 것도 비슷한 관례였다. 그들에게는 이방인, 과부 및 고아의 권리에 관한 율법(레위기 19:19~20, 23:22)과 남겨둔 것을 취할 권리(신명기 24:19~22)에 관한 율법이 적용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낯선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제공하라고 명령하셨다(신 10:18). 이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방인과 고아에게 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시길 원하신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신 10:15),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신 10:18~19). 브루그만(Brueggemann)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와 초기 약속(사랑)은 이제 이방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이차적 헌신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사랑은 사회 취약계층을 사랑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요일 4:19~20).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정리: <디아스포라 선교학>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용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항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은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영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윤탁 박광운 옥치안 이용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옥,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제,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싱글 ▪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7관

극복과 인내의 아이콘, 꿈꾸는 디아스포라 요셉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위디국제선교회 국제이사



글

Dr. Tereso Casiño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창세기 50:18~21)

노예 신분의 디아스포라는 항상 불안정한 상황과 불리한 조건에 노출되어왔다.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꿈을 꾸는 요셉 역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나중에 이르러서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다고 요셉의 경험을 모든 디아스포라에 관한 청사진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디아스포라로서 시련을 극복하고 성공에 이른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감을 줄 수 있다.

첫째로, 집을 떠나 노예로 살아간 요셉은 고난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요셉은 노예로서 가장 낮은 바닥에서 애굽 전체의 가장 높은 위치에 이르기까지 온갖 장애물을 극복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러나 요셉은 끝끝내 살아남았다. 애굽의 고위

정부 관리인 보디발의 노예가 되면서 애굽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강제적 이주는 요셉의 노예 디아스포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였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 피난을 갔고,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모 및 형제들과 떨어져야만 했고 꿈쩍없이 낯선 외국으로 원치 않는 이주를 하게 되었다.

셋째, 요셉의 삶은 여러 '꼬인 문제'들로 가득했다. 그가 예전에 꾸는 두 가지 꿈의 의미는 매우 명확했지만, 그 명확함과 별개로 꿈을 두고 가족 사이 논쟁이 오가면서 요셉의 삶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다. 요셉의 삶은 단단히 꼬여 구덩이에 던져짐, 노예로 팔림, 지하감옥에서의 투옥 등 부당한 시련으로 가득했지만, 요셉은 마침내 승리했다.

넷째, 요셉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었다. 그는 형제들과 구별되는 화려한 채색옷을 입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그러나 정작 이 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품과 따뜻한 손길에서 끊어지는 일을 당해야 했다.

다섯째, 요셉은 노예 디아스포라로서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 주민들의 처분에 따라 일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고난을 통해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애굽의 정상에 올랐다. 어느 노예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노예가 시련을 이겨내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그러나 요셉의 경험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요셉은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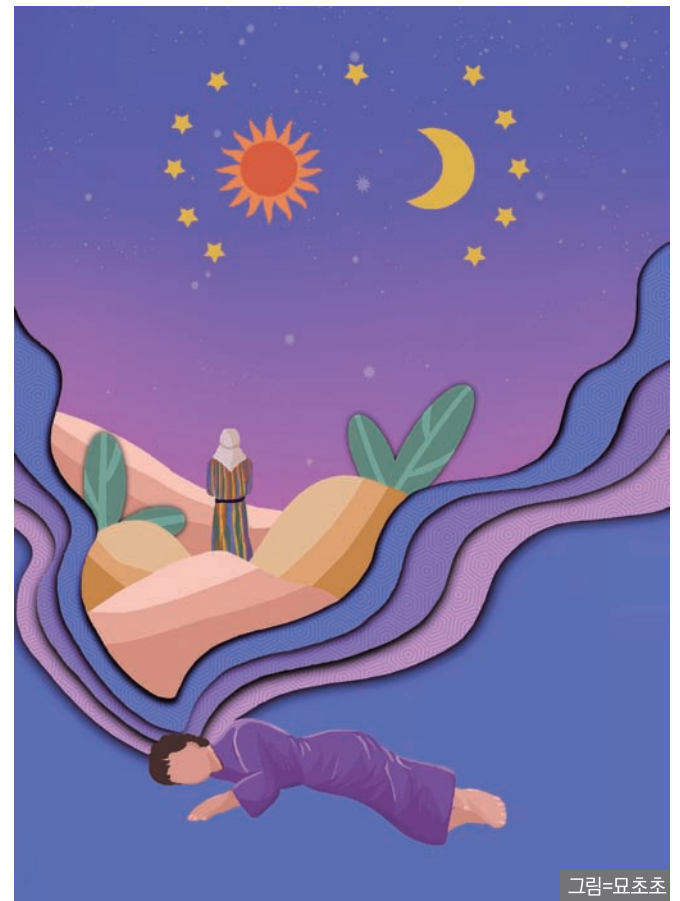
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번영했다. 그의 생존 기술에는 '특별한 비결'이 없었으며, 요셉과 같이 노예로서 성공을 거두는 일은 다른 곳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요셉은 적대적인 사회 속 미천한 지위를 가지고도 외국에서 성공할 수 있던 몇 가지 덕목을 보여준다. 요셉을 성공시킨 한 가지 미덕은 규율을 지키는 것이다. 이 어린 노예 디아스포라는 영적,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실용적인 면 등 삶의 모든 면에서 훈련된 사람임을 보여준다.

요셉이 그에게 닥친 일로 인해 불평했는지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요셉은 13년 동안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요셉의 영적 헌신은 가혹한 현실을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비록 집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요셉의 삶의 중심에 계셨다.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결과를 받게 하셨다.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과 신뢰, 순종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요셉은 하나님과 주어진 일에 대해, 주인과 통치자를 비롯한 모두에게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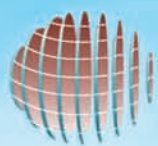
신적인 사람이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기 일에 집중했다. 그의 위사람에 대한 충성심은 힘든 시기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바로는 요셉의 헌신과 자질을 인정했고, 결국 그를 국무총리로 임명했다. 요셉은 총리가 된 뒤 찾아온,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온 가족과 화해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관대하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가족보다 먼저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창세기 45:7) 이처럼 요셉은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다.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그림=묘초초

세계를 향해 날으는 학위 취득……

www.globaluniversity.kr



글로벌대학교
Global Universtiy

미국연방정부 BA학사학위(신학과, 기독교교육과)
대졸, 신학졸, 전문대졸 편입가능
한글, 영문 택일 / 혼용
02-3662-1004

[인터뷰] 넥스트무브(NextMove) 대표 존 백스터 박사

존 백스터 박사(Dr. John Baxter)는 선교단체들을 열어 유기적 선교를 수행하는 넥스트무브(NextMove)의 공동창립자로서, 올해 9월 미국에서 열릴 무슬림 난민 관련 콘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넥스트무브를 통해 미국세계선교센터(USCWM, 현 프론티어벤처스)와 침례교단(Converge) 선교부 및 이주민 선교사역 실행가들과 함께 사역하며, 과거 로잔 GDN의 카탈리스트 직을 맡기도 했다. 디아스포라신문은 사역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존 백스터 박사를 만나보았다.

— 넥스트무브의 사역을 소개해달라.

넥스트무브는 지속성을 가지고 파송 선교단체에 이주민 이슈를 전하며, 아울러 이주민 사역이 연합과 협업으로 진행되도록 돕는다. 최종적으로 이주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선교의 재생산을 이루려는 데 노력한다. 이에 파송 선교단체 리더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주민선교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성과 방법을 전하여 적용을 돕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한 경우, 문제를 해결하고 솔루션을 공유하기 위해 새롭게 솔루션 팀을 구축하여 문제를 연구하고 방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양측이 지혜를 모으고, 각 선교단체에 선교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을 알려준다. 또한 가장 우선적인 디아스포라 선교에 참여하도록 정보를 계속 보강하고 있다.

— 솔루션을 위한 연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넥스트무브는 이주민선교가 성경적으로 타당하며 선교의 열매를 위한 노력임을 확신한다. 그러나 모든 선교단

선교단체와 실무자들이 디아스포라 선교 참여에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넥스트무브(NextMove)'

체가 이주민선교나 관련 사역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선교단체는 서로 다른 사역 목표와 사역 철학을 가지며, 인력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전도종족에게 초점을 맞추는 선교단체의 경우, 디아스포라 선교 참여가 그들의 사역을 발전시킬지 그 여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비전은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서 선교단체와 실무자들이 디아스포라 선교 참여 여부에 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넥스트무브는 미전도 디아스포라들이 고국에서 이차적인 영향, 즉 선교적 열매를 맺는 케이스들을 파악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주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크게 진전시키고 계신다는 양적·질적 증거를 찾기 위함이다.

아울러 선교단체가 이주민선교 참여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는 데 유익하도록 이주민 사역을 세부적으로 구별하고 용어를 정립하기도 한다. 초반에 용어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모호함이 반영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넥스트무브가 정리해나간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전도 디아스포라 사역'이다. 이와 같은 사역은 미시적으로 연구 초점을 맞춰 선교사 인력과 지역교회 및 디아스포라 인적자원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사역 결실' 역시 다양한 케이스가 수집되고 검증될 것이다. 디아스포라들이 '문화적 고향에서 끼치는 이차

적인 영향'도 아직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연구 중에 있다. 연구 의도는 단순히 대표적인 샘플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선교 참여의 가치를 확립하는 데 있다. 또한 연구 샘플은 상당한 규모와 다양성을 갖추어야 실무의 성과 정도를 식별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서구를 넘어 대다수 국가의 디아스포라 맥락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구 초점도 학문적인 접근이 아닌, 선교단체와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맞춰나갈 것이다.

— 기존의 연구 과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넥스트무브는 30개의 선교단체와 네트워크 내에서 최소 30개의 고품질 인터뷰로 이어질 300개의 현장 질적 조사를 감독할 연구 진행자를 식별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넥스트무브 네트워크의 전 세계 사역자와 동역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결과를 수집하여 실무자를 식별한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 사례를 모아 발표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이주를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는 프로세스인 것이다.

설문조사에는 선교단체 지도자, 디아스포라 선교 실무자, 데이터 및 연구 전문가, 남반구 및 이주민의 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복음운동과 이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광범위해야 한다. 설문조사는 양적·질적으로 보장되

어야 하며, 따라서 초국가 연구원이 식별 및 선별되어 조사 결과를 수집하고 처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고객은 선교단체와 디아스포라 선교 실무자이다. 이 두 그룹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설문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정보는 안전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게시될 것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디아스포라 사역의 중요한 점을 꼽는다면?

오늘날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이주자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대위임령을 이루어야 하는 파송 선교단체라면 디아스포라 이슈를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허다한 선교단체가 지금까지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았으며, 선교 전문가들조차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대부분은 자신의 품으로 오는 이주민을 보고 '사



Dr. John Baxter

- NextMove 공동창립자
- 전 로잔GDN 카탈리스트
- 침례교단(Converge) 선교부 본부장
- Missio Nexus 디아스포라 자문위원
- Sioux Falls Seminary 겸임교수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이주민선교 정보를 공유하고 소식을 전하는 디아스포라신문의 문서선교에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구독신청: 010-7418-0191 ※ 후원계좌: 국민은행 264401-04-34307

람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넥스트무브는 모든 선교단체가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의 교회에서 복음을 듣는 것을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할 수 있듯이, 더 나아가 크리스천이 이민 또는 이주하여 주변 지역에 크리스천으로서 영향력을 내뿜는 것도 디아스포라 선교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에 게 선교가 일어나고(to diaspora),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선교가 일어난다(from diaspora)는 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자 이슈이다.

— 향후 계획과 9월에 있을 무슬림 관련 콘퍼런스에 대해 알려달라.

모든 선교단체마다 디아스포라 선교에 실제적 참여가 일어나도록 전방위적으로 도와주고 필요를 지원하는 사

역을 앞으로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파송하는 서구 선교단체가 우선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시아를 순방하며 한국에 온 이유는 한국 이주민 선교단체의 이야기를 듣고 미국 선교단체에 전달하여 미국 밖에서 이뤄지는 요청과 필요를 널리 알리고자 함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한다. 분명한 것은 넥스트무브의 관심이 이주민 자체가 아니라, 파송 선교단체에 세계적인 디아스포라 이슈를 알려주고 참여케 하는 데 있다. 전문 선교사만 훈련시키고 선교사를 보내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각자 직업군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도울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미국에 체류하는 무슬림 이주민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하고, 이주민 사역을 도전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다. 이주민선교라는 이름으로 무슬림 이주민에게 사역의 씨앗을 뿌리는 일부터 열매를 거두는 과정까



▲ 넥스트무브의 연구는 학문적인 접근이 아닌, 선교단체와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 초점을 둔다.

지의 내용을 담아 'Vision 5:9' 단체와 연합하여 여는 것이다. 이때 한국의 케이스도 포함시키고 싶다.

— 한국교회와 한국 이주민 사역자들을 향해 전하고 싶은 말은.

한국교회가 이주민선교를 매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 한국의 이주민선교의 모델과 최근 로잔디아스포라가 교육훈련 내용으로 채택한 이주민선교훈련학교(MMTS)를 통해

우리도 많이 배웠다. 사람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보이신 분명한 계획이다.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것은 기본 책임임을 알고, 디아스포라 이주민선교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길 기대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nextmove.net)에서 참고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사항을 남길 수 있으며, 관심 선교단체와의 협업 방법 등을 공유받을 수 있다.

전주대, 유학생 호스트 패밀리 결연 '함께하면 더 좋은 세상'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국제교류원은 지난 6일 '함께하면 더 좋은 세상'이라는 주제로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가정을 맺어주는 '호스트 패밀리

(Host Family)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주장동교회(김태영 목사) 성도 6가정과 외국인 유학생 6명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연이

되어 서로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주대는 지난 5년간 200여 명의 유학생과 지역사회 구성원과 인연을 맺도록 지원했다.

전주대 호스트 패밀리는 홈스테이처럼 유학생이 함께 거주하지는 않지만, 한국 가정과 연결된 유학생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가족처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며, 서로 간에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는 기회의 통로가 됐다.

이번에 캄보디아 유학생과 인연을 맺은 박용철 씨(전주시 덕진구)는 "아

들 같은 유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룸에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제교류원장 제혜금 교수는 "따뜻한 마음으로 유학생들을 격려해주시는 지역의 가정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유학생 관리 모델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leejh@unn.net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가치)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외국인 사역자에 대한 이해 (2)

고신대 기독교교육학 전공
교육학 박사
HOPE 선교사



글

윤사랑 박사

외국인 사역자들은 다양한 루트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에 속하여 학업과 사역을 시작하였다. 먼저, 한국교회 내 사역 경험은 무엇이든 다 해내야 하는 전천후 사역으로 목양의 고충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 사역자 역할과 이주민 사역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사역을 경험한다. 그리고 한국 스타일을 고집하는 스텝들, 성과에 치중하면서도 외국인 사역에 준비가 부족한 스텝과의 관계, 또는 스텝이 사역자의 권위를 넘어서는 경우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 뿐만 아니라 사역의 자율성과 사역적 지원 부족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교회 내 사역의 경험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낳는다. 한국어 사용에 따른 소통의 문제, 이로 인해 사역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거주와 비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나타난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역자 자신에게 여러 흔적이 남았지만 나름의 해소 방법을 찾고 있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사람들의 무례한 태도로 인한 상처를 경험하고 있으며, 냉정한 교회의 처우나 버림받는 경험으로 우울증과 자살충동까지 경험한다. 재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학업과 생활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담을 느끼며, 파트타임 사역자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구조에 갈등을 느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국인 사역자들은 재정에 대한 나름의 신념도 갖게 됨을 볼 수 있다. 한국

교회 조직의 높은 벽을 느끼며 늘 경계하는 몸과 마음은 그들이 얼마나 긴장 속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인 사역자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노력하고 있었다.

장기간 한국교회의 이주민 사역에서 이주민들의 반복되는 이동, 즉 새로운 만남과 떠남을 경험하면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생활과 사역의 안정과 불안정 사이에서, 또한 가르침과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괴리감과 회의감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 모든 딜레마를 뒤로한 채 사역을 지속하며 견딘다. 한국교회에서 겪는 유교문화, 다양한 이주민들을 한국 스타일로 묶는 예배의 틀,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우리주의'라는 관계 틀 속의 개인주의 문화 등을 경험하며, 정체성의 혼돈을 느끼고 자신이 두 문화 속에 있는 이중적 존재임을 발견한다. 또한 외국인 사역자들은 사회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차별을 신학교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한다.

외국인 사역자들이 한국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긍정적인 면으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신앙적인 변화와 성장 그리고 지지를 들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통한 위로와 지지도 있는 반면, 배우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의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하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따돌림과 차별을 직면한다. 이런 가운데 신학과 다양한 학업, 목양에 필요한 준비됨, 독립교회까지 꿈꾸는 자신의 변화, 성장 그리고 도전이 외국인 사역자의 삶에 의미와 기쁨을 준다. 특히 고국교회의 미래가 될 이주민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들의 변화와 성장은 외국인 사역자들의 삶에 큰 이유가 된다. 또한 한국교회 내에서

사역함으로써 누리는 배움과 도전 역시 삶에 풍성한 의미를 준다고 보았다.

한국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지지와 위로, 사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또한 사역의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요소로 기도와 헌금생활, 체계적인 교회조직과 교회교육, 선교에 대한 열정과 섬김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성도의 높은 소양을 손꼽았다. 외국인 사역자들이 말하는 한국교회의 특징으로는, 먼저 서열 문화와 행정조직 문화 그리고 실적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문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여성 사역자들의 사역과 그들에 대한 처우를 지적하며 한국교회 대한 염려를 드러냈다.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와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첫째, 이주민 사역은 보여주기기식의 사역이 아니며, 훈련된 외국인 사역자의 리더십과 협력하고, 한국인의 자민족중심에서 탈피하여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에 대하여 단기 쇼로 끝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의 부족한 상황화와 팀워크의 부재를 선교의 부정적인 면으로 평가했다. 코로나 19 이후 사역에 대한 위기가 있었으나 한국교회는 기존의 목회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황에 직면했다고 언급한다. 현지 성도들은 인적교류와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심리적, 정신적 고갈 상태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위기대처와 도전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동안 이루어졌던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을 반성하며, 사역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요청된다고 보고 있다.

외국인 사역자들은 자신의 전체 삶을 회고하며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의 여정과 목회적 성장과 성숙의 시간 그리고 비전과 소망을 나누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삶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았던 일들도 언급한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에서 사역을 준비하고자 하는 외국인 사역자들이 어떠한 부분에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사역자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코람테오의 성숙한 삶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한국교회를 이해하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교회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국교회 내 사역하는 외국인 사역자들을 이해하고 기다려 주기를 부탁한다. 특히 외국인 사역자들을 교회의 동역자로서 존중해 주길 제안한다. 끝으로 외국인 사역자들은 한국교회가 점점 다문화 되어가는 사회적 현상을 직면하고, 특별히 외국인 사역자 양성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여 다문화 사회를 향한 선교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본 기사는 2022년 KIMA 포럼의 윤사랑 박사 발제문에서 3회에 걸쳐 기고하며, 연구 결과에 따라 특히 외국인 사역자의 한국교회 내 사역경험에 관한 내용이 다음 호에 이어진다. ▶ 다음 호에 계속

한국이주민선교연합회
Kima

To the Ends of the Earth
: Beyond Mission Work/Missions 200 Nations Journey

기념 대회 일정 (3월10일~12일)

10일

저녁 / 강의 1 역사 문화 정치

11일

오전 / 강의 1 종교 기독교 선교
강의 2 경제 사회 교육
오후 / 교계 지도자 세미나
저녁 / 목회자 세미나

12일

오전 / 200번째 사역 국가 기념 예배
오후 / (사)세계총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팔레스타인 기도회
저녁 / 한인 선교사 세미나

“성경의 땅” 탐방 일정 (3월13일~17일)

Mon.

예루살렘, 갈릴라, 승천동, 주기도문교회, 찬양대, 눈물교회, 갓세마네교회, 시온산, 동국의 벽, 베데스다못, 채찍교회, 십자가의 길, 성요교회, 다윗묘, 마가의 다락방

Tue.

요단강 세례터, 맛사다, 엔게디, 쿨란공중터, 사해사본발견지, 예리고

Wed.

사무엘묘, 뻬렐, 아글의 우물, 세겔 성터, 사마리아성, 그리심산

Thur.

요단계곡, 뻬산, 헬몬산아래 탕단, 가이사라 빌립보, 갈릴리 호수, 팔복교회, 오병이어교회, 가버나움, 베드로수위권교회, 갈릴리호텔 숙박

Fri.

가나안 혼인잔치, 나사렛, 므깃도, 갈릴산 엘리야교회, 음바 항구, 지중해 가이사라

참가 일정은 현지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번째
사역국가
기념대회

2023.03.10~17

*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7면 '성경 속 이주민' 원문을 게재합니다.

Joseph, the dreaming diaspora (Genesis 50:18~21)

Slave diasporas are always in precarious situations and disadvantageous conditions. In the Old Testament, Joseph the dreamer faced so many challenges as a young boy yet ended up rising to the highest level of government position in Egypt. It will be unwise to make Joseph's experience as a blueprint for all diasporas in world history, especially those in slavery; but what happened to Joseph could inspire many who resonate with his difficult but successful journey.

From the lowest chamber of society as a slave to the highest level of leadership in the entire Egypt, Joseph overcame all kinds of obstacles. The young dreamer learned to survive the series of hardships in life as a slave away from home. First, Joseph learned to overcome danger. His brothers threw him into a pit and sold him to the Midianites. His life was threatened, yet Joseph was resilient. The "dreamer" eventually ended up in Egypt as a slave to Potiphar,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Second, dislocation featured Joseph's journey as a slave. He was displaced from his beloved homeland, away from his comfort zone. In the process, he was moved away from his parents and siblings as a result of his older brothers' betrayal. The dreamer was re-located to a strange and foreign country.

Third, Joseph dealt with distractions in life. His two original dreams were clear to him but there were distractions along the way: the pit, two slave transactions, and imprisonment in a dungeon. However, the young dreamer prevailed.

Fourth, Joseph dealt with disruption in family relationships. He certainly was close to his father, having received a colorful coat that distinguished him from his siblings. But this bond was interrupted by a series of events that moved him away from his safe zone, that is, the loving arms and reassuring arms of his father and mother.

Fifth, Joseph faced distressful conditions as a slave diaspora. While in slavery, the dreamer had nowhere to go but to serve at the disposal of his Egyptian masters. The thoughts of his family and the status of slaves during his time could be depressing and disheartening, but he learned to survive through all his ordeals.

Can a slave make it to the top of society? Joseph's experience shows that this is a possibility. In fact, despite all odds, Joseph did not only survive but also thrived. There are no 'secrets' to his surviving skills and his success in Egypt as a slave diaspora could be replicated elsewhere. However, Joseph demonstrates some virtues that made him successful in a foreign land despite

his lowly and marginalized status in a hostile society. One virtue that made Joseph successful is discipline. The young dreamer demonstrates disciplines in all aspects of life—spiritual, physical, emotional, mental, social, and practical. Did Joseph complain about what happened to him? The Bible is silent about this, but throughout the narratives, Joseph showed consistency and coherence throughout his thirteen years of preparations to become the second highest official in the land.

Joseph's spiritual devotion helped him cope with the challenges of a foreign slave. Although away from home, God was always the center of Joseph's life. God prospered him in everything he did. His faith, trust, and obedience to God remained strong in a land full of idol worship.

The young dreamer was a man of dedication both to God and to his tasks, masters, and ruler. Even in terrible times, Joseph focused on his job; his loyalty to his superiors was evident during trying times. Pharaoh recognized the dreamer's dedication and qualities and eventually appointed him as governor of Egypt.

The young slave diaspora was a man of difference. Obviously, Joseph worked harder than his fellow slaves and servants, and his dili-

gence caught the attention of his superiors. In engaging Pharaoh's butler and cupbearer, Joseph was straightforward, honest, and different, thereby avoiding shortcuts to success.

Joseph was a man of deliverance. He could have locked up his brothers in jail who sold him to slavery, but Joseph reconciled with them and the entire family as well. As governor of Egypt, Joseph was forgiving and sensitive to the needs of others, including his own siblings. When he saw his brother Benjamin for the first time in thirteen years, he wept. He was strongly aware that God sent him ahead of his family to Egypt as deliverer(Genesis 45:7).

Most of all, Joseph was a man of discernment. This virtue began when he had his first two dreams and later when he interpreted the dreams of Pharaoh's two officials in prison and the dreams that Pharaoh himself had. Joseph harnessed this divine gift, not simply to dream about his future but also to interpret other people's dreams that would turn the tide of events in Egypt and beyond its borders. All this, Joseph, knew was part of God's will in his life: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gave him success in whatever he did"(Genesis 38:23).



Relief

Based on the nature of Sorok's clientele the foundation provides temporary relief which varies from food, shelter and medical assistance. Sorok also launch short-term emergency relief projects under this program in times of calamity or disaster in the Philippines.

SUFI CORE PROGRAMS

Sorok encourages and help individuals to be empowered mentally,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e following projects.

Empowerment

Rehabilitation

Sorok provides a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rogram for social integration and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especially for persons affected with leprosy and homeless street people

Sustainability

In line with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this program was created to ensure sustainability of the beneficiaries, the organization and even the helping mindset of the Filipinos.

SOROK UNI FOUNDATION, INC.
Rebuilding Lives, Empowering People
Founder & Chairman: Dr. Jae J. Jang

SOROK UNI COMMUNITIES



NATIONAL CAPITAL REGION



SAN ANTONIO QUEZON PROVINCE



REGION IV-B OCCIDENTAL MINDORO



MCS PASOLOBONG, ZAMBOANGA CITY

디아스포라 선교의 방향과 도전: 21세기 선교환경의 변화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유럽난민학습 공동체 대표



글

김성훈 선교사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일 김성훈 선교사의 저서 <마지막 시대의 모략: 디아스포라> 본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본서의 3장 '디아스포라 선교의 방향과 도전 I'을 요약하였다.

세계교회와 선교에 대한 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워드 슈나이더(Howard A. Snyder)와 다니엘 루넌(Daniel V. Runyon)이 제시하는 21세기 선교환경의 변화에 관한 다음과 같은 트렌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① 지역교회에서 세계교회로
- ② 분산적인 성장에서 광범위한 부흥으로
- ③ 공산주의 중국에서 기독교 중국으로
- ④ 제도적 전통에서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 ⑤ 성직자/성도에서 사역 공동체로

- ⑥ 남성 주도의 리더십에서 남녀 공동의 파트너십으로
- ⑦ 세속화에서 종교적 상대주의로
- ⑧ 핵가족제도에서 가족의 다양성으로
- ⑨ 정교의 분리에서 기독교적 정치 참여로
- ⑩ 안전한 지구환경에서 위협받는 혹성으로

이에 덧붙여, 남미 페루의 선교학자인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는 이민과 디아스포라(migration/diaspora)가 메가 트렌드로서 미래의 선교 방향이자 도전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교회가 수행해온 선교방식의 재평가와 더불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적절한 선교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비서구교회는 서구가 지난 세기 동안 주도해온 선교에 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리고 이제는 비서구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진지한 책임의식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교회들은 자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민의 형태를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과거에 복음을 전해준 서구교회와 공존을 모색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정작 교회 및 선교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서구와 비서구 그 어느 쪽도 확신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나단 잉글비(Jonathan Inglby)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첫째, 비서구의 선교에 대한 서구교회의 실패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 아무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 지금까지의 선교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비서구가 서구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서구가 잠재적으로 비서구의 주도권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 서구의 대안으로써 비서구의 부상이 매우 더디다는 점, 비서구

라는 대안이 솔직하게 의심스럽다는 점, 그리고 서구를 재복음화하려는 비서구의 진정성이 준비되어 있는지 등의 의문이 따르는 것이다.

잉글비는 더 나아가서 미래 도전에 관한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경고를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서구 주도 선교가 성공적인 모델로써 역량이 부족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 비서구도 자신의 성공에 도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비서구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현재 선교계 전반에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구의 문제는 서구가 풀어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서구의 재복음화도 상황화되어야 할 것과, 동서 대결 구도는 서구 계몽주의의 산물이므로 동서가 함께 이를 극복하는 모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요약된다.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7면 '성경 속 이주민'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克服与忍耐的icon, 追梦的diaspora 约瑟 (创世纪50:18~21)

奴隶出身的的移民群体时刻处在不安定, 不公平的环境之中。旧约圣经中的约瑟从少年时期就经历了重重考验, 最终登上了埃及仅次于王的最高职位。当然, 我们不能把约瑟的个人经历描绘成所有移民群体的人生蓝图。但是, 约瑟克服困难取得成功的经历却可以给同作为移民的人们带来人生感悟。

曾是奴隶的约瑟克服了种种艰辛从社会最底层走上了埃及权力高位。做梦的少年约瑟离开家乡, 沦为奴隶, 经历一连串的苦难, 最终学会了生存的法则。首先, 约瑟学会了如何面对危险。约瑟的兄弟们把他扔进深坑里, 卖给了米甸人, 约瑟的生命受到威胁, 但他学会保全性命, 成为法老内臣护卫长波提

乏的奴隶, 留在了埃及。其次, 非主观意愿的移动迫使约瑟开始了移民生活。他在心爱的故乡遭难, 离开了自己的舒适圈和父母和兄弟, 移居到了陌生的国外。再次, 约瑟解决了人生中各种难题。他虽然做了两次很明确的梦, 但却也因此遭遇错综复杂的人生经历: 被扔进深坑, 被卖为奴隶, 被关进地牢等, 但最终, 少年约瑟取得了胜利。从次, 约瑟经历了家庭关系的矛盾。不同于他的兄弟们, 约瑟独享父亲给自己的一件华丽的彩衣, 深得父亲的宠爱, 却也因此离开父母温暖的怀抱, 遭受各种苦难。最后, 奴隶约瑟除了被埃及主人吩咐做事, 他没有其他地方可去。对家人的思念加上奴隶生活的艰苦, 他只能悲惨地生活, 但是约瑟却借着苦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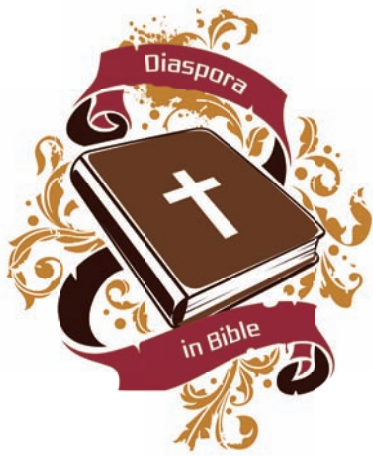
学会了生存。奴隶可以挤入社会的顶层吗? 约瑟的经验告诉我们答案是可能的。事实上, 身处困境的约瑟不仅生存下来, 而且越来越昌盛发达。他的生存技术没有'特殊的秘诀', 不只在埃及, 在任何地方, 他都可以成功。约瑟向我们展现了几种美德, 展示如何在人生地不熟的国外, 在被排挤的敌对社会中最终取得成功。首先, 促使约瑟取得成功的第一个品德是律己。这位年幼的奴隶移民在生活的各个层面: 灵性, 身体, 感情, 精神, 社会以及实用能力上都得到了训练, 圣经没有过多的描述约瑟所受的各种苦难, 但是我们却能通过圣经看到约瑟在13年的时间里表现出了一贯性。约瑟在灵命上的献身帮助他度过现实生活中的各种困

难, 虽然身处异乡, 却一直把神放在人生最中心的宝座上, 神使约瑟所做的一切尽都顺利。在偶像崇拜严重的埃及, 他明确地表现出了对神的信任和顺从。约瑟忠于神所赐的工作, 忠于肉身的主人。在最困难的时期, 约瑟仍旧专注于自己的工作, 展现出对上级的忠诚。法老看中了约瑟的献身精神和能力, 最终任命他为国务总理。约瑟成为总理后, 虽然有机会可以把卖自己为奴的兄弟们关进监狱, 却化干戈为玉帛, 与弟兄们和解。进一步说, 他对包括自己的兄弟姐妹在内的其他人都非常宽容, 敏锐地了解他们的需求。因为他确信是神差他在家人以先来埃及地(创世纪45:7), 我们可以看到约瑟是个明事理, 有分辨力的人。 번역기자 묘초초



*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7면 '성경 속 이주민'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Yengish va qat'iyatni orzu qilgan diaspora Yusuf ramzi



Ibtido 50:18~21

Qullik diasporasi doimo beqaror vaziyatlar va noqulay sharoitlarga duchor bo'ladi. Eski Ahdda tush ko'rgani yozilgan Yusuf yoshligidanoq juda ko'p sinovlarni boshdan kechirdi, lekin oxir-oqibat Misrda eng yuqori darajaga ko'tarildi. Biroq Yusufning tajribasini barcha diasporalar uchun loyiha sifatida taqdim etish oqilona bo'lmaydi. Ammo Yusuf diasporasi kabi sinovlarni yengib o'tib, muvaffaqiyatga erishish haqidagi hikoyalar bunga qiziqqan ko'plab odamlarni ilhomlantirishi mumkin.

Yusuf qul sifatida eng quyi darajadan boshlab butun Misrdagi eng yuqori rahbarlik mavqeigacha bo'lgan yoldagi barcha to'siqlarni yengib o'tdi. Yosh xayolparast Yusuf uyni tark etib, qul bo'lib yashab, qator qiyinchiliklarda omon qolishni o'rgandi. Birinchidan, Yusuf xavfni yengishni o'rgandi. Yusufning akalari uni chuqurlikka

tashlashdi, keyin Midiyonliklarga sotib yuborishdi. Uning hayoti xavf ostida edi, lekin Yusuf yengdi. Oxir-oqibat, u Misr hukumatining yuqori martabali amaldori Po'tifaroga qul bo'lib, Misrda qoldi.

Ikkinchidan, majburiy kochish Yusufning qul diasporasi sifatidagi sayohatining boshlanishiga sabab boldi. U sevimli mamlakatidan qochib, o'zining qulay joyidan chiqib ketdi. Bu jarayonda u ota-onasi va aka-ukalaridan uzoqlashdi. Yusuf boshqa davlatda muhojir bolishga majbur bo'ldi.

Uchinchidan, Yusuf hayotning murakkab qiyinchiliklarini boshdan kechirdi. O'tmishda ko'rgan ikkita tushi juda aniq edi, lekin bu jarayonda ular murakkablasha boshladi. Chuqurga tashlandi, qullikka sotildi va zindonga qamaldi. Ammo bu yosh Yusuf g'alaba qozondi.

To'rtinchidan, Yusuf oilaviy nizolardan aziyat chekdi. Uning rang-barang kiyim kiygani uni akalalaridan ajratib turardi. Shunchalik otasining sevgisini oziniki qilib oldi. Biroq shu tufayli u otasi va onasining mehribon va issiq qo'llaridan ajralishiga to'g'ri keldi.

Beshinchidan, Yusuf qul diasporasi sifatida ayanchli vaziyatga duch keldi. Qullikda

bo'lganida, uning misrlik xo'jayinlari ixtiyorida ishlashdan boshqa boradigan joyi yo'q edi. Baxtsiz yashashga majbur bo'lgan, oila va qullik haqidagi fikrlardan tushkunlikka tushgan bo'lsa-da, Yusuf barcha qiyinchiliklarda omon qolishni o'rgandi.

Qullar jamiyat tepasiga ko'tarila oladimi? Yusufning tajribasi shuni ko'rsatadiki, bu mumkin. Darhaqiqat, Yusuf nafaqat omon qoldi, balki har qanday qiyinchilikka qaramay muvaffaqiyat qozondi. Uning omon qolish konikmasining 'alohida siri' yo'q va uning qul diasporasi sifatida Misrdagi muvaffaqiyati boshqa joylarda ham takrorlanishi mumkin edi.

Yusuf dushman jamiyatidagi past va chegaralangan mavqeiga qaramay, uni boshqa davlatda muvaffaqiyatga olib keladigan bir qancha fazilatlarni namoyish etadi. Yusufni muvaffaqiyatga erishtirgan fazilatlardan biri - bu intizomdir. Bu yosh qul diasporasi hayotning barcha jabhalarida - ma'naviy, jismoniy, hissiy, aqliy, ijtimoiy va amaliy hayotda intizomni namoyish etadi. Muqaddas Kitobda Yusufning hayotidan shikoyat qilgan-qilmaganligi haqida hech arsa yozilmagan, lekin Yusuf 13 yil davomida mustahkam boldi.

Yusufning ruhiy sadoqati

haqiqatda yengishga katta yordam berdi. Uydan uzoqda bo'lsa ham, Xudo doimo Yusufning hayoti markazida boldi. Xudo Yusufni har bir ishida katta natijalarga erishtirdi. Butparastlikka to'la yurtda uning imoni, ishonchi va Xudoga bo'ysunishi yaqqol namoyon bo'ldi.

Yusuf Xudoga, o'ziga berilgan ishga, ham xo'jayinga, ham hukmdorga sodiq odam edi. Qiyin kunlarga qaramay, Yusuf o'z ishiga e'tibor qaratdi. Uning boshliqlariga sodiqligi og'ir damlarda aniq ko'rindi. Fir'avn Yusufning fidoyiligini va fazilatlarini tan oldi va oxir-oqibat uni Bosh vazir etib tayinladi. Yusuf bosh vazir bo'lganidan keyin uning oldiga kelgan, uni qullikka sotgan aka-ukalarini qamoqqa tashlashi mumkin edi, ammo u butun oilasi bilan yarashdi. Bundan tashqari, u bag'rikeng va boshqalarning, jumladan, o'z aka-uka va opa-singillarining ehtiyojlariga sezgir edi. U Xudo uni oilasidan oldin Misrga yetaklaganini aniq bilardi (Ibtido 45:7). Yusuf shunday aqlli odam edi.

번역기자 정요셉



위 디 국 제 선 교 회
WiThee Mission International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랑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여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예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예배 19:30 / 목회회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 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성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서울권역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H** www.nasom.or.kr

영어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반포동)

T 02-2023-5600**H** www.namseoul.org

북한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H** www.gw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H**
글로벌예배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주일 오후 2:0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7번지 3층

T 02-793-0193**H** www.gfm153.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오름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H** www.or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벵갈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다하나국제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39

T 02-2269-0654**H**
다하나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토요일 오후 6: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ISF(국제학생회)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10길 6층

T 02-2051-7040**H** www.isfkorea.orgsangdang.org

수도권역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보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H** www.sja.or.kr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몽골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순복음열방선교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12 2층

T 032-874-8291**H**
다문화통합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후 1:00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시흥네패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H** www.aicindonesia.co.kr/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8:00

토요일예배 토요일 저녁 8:00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T 031-400-1111**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 예배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서울권,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전라권(광주)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H** www.kvim.hompee.com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7

T 031-354-9221**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정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위대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화로 66-16

T 031-385-4680**H** www.withee.org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2:3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30

올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00

다문화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458

T 032-424-8511**H** www.hyo7.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5: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13(산곡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20(주안동)

T 032-527-1009**H** www.juan.ok.kr

새터민 햇빛공동체 주일 오후 12:30

베트남주안교회 주일 오전 10:00

네팔주안교회 주일 오후 1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후 2:30

파키스탄어예배 주일 오후 4:00

하베스트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7-1 2층

T 010-2025-7123**H**
다민족예배 주일 오전 11:30

안내 접수

담당 이진아 기자
izina@hanmail.net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드립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8:00

순복음생명수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경상권역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유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저녁 8:00,
주일 오후 1: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타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10-9747-0316

H ulinch0229.v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교실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경북 경주시 한빛길 23 3층

T 054-772-0691

H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예배 토요일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호남권역

갯소리성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충청권역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디아스포라신문

발행·편집인 문창선 목사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7면 '성경 속 이주민'을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GIÔ-SÉP, NGƯỜI CÓ GIẤC MƠ, HÌNH ẢNH VƯỢT KHÓ VÀ KIẾN TRÌ (Sáng thế ký 50:18~21)

Cộng đồng nô lệ diaspora luôn phải đối mặt với hoàn cảnh bất an và những điều kiện bất lợi. Kinh Thánh Cựu ước đã ghi chép lại về một Giô-sép, người có giấc mơ trong mình, từ khi còn trẻ đã trải qua rất nhiều thử thách nhưng cuối cùng ông đã vươn lên đến vị trí cao nhất ở Ai Cập. Tuy nhiên, sẽ không khôn ngoan nếu chúng ta trung dẫn kinh nghiệm của Giô-sép như một bảng kế hoạch cụ thể cho cộng đồng hải ngoại. Dầu vậy câu chuyện của Giô-sép sẽ truyền cảm hứng cho nhiều người về việc vượt qua thử thách và đạt được thành công.

Giô-sép đã vượt qua mọi trở ngại từ một nô lệ có địa vị thấp nhất đến vị trí lãnh đạo cao nhất trong toàn cõi Ai Cập. Giô-sép, chàng trai trẻ mộng mơ, đã phải rời khỏi nhà mình và học cách sống sót qua hàng loạt khó khăn khi sống như một nô lệ. Đầu tiên, Giô-sép phải học cách vượt qua nguy hiểm. Các anh của Giô-sép đã ném ông xuống giếng sâu và sau đó đã bán ông cho những tay lại buôn Ma-đi-an. Mạng sống

của ông bị đe dọa nhưng ông đã vượt qua. Cuối cùng, ông trở thành nô lệ cho Phô-ti-pha, một quan chức cấp cao của Ai Cập và ở lại Ai Cập.

Thứ hai, việc cưỡng ép di cư đã bắt đầu cho hành trình lưu vong của Giô-sép. Trong quá trình đó ông, ông phải rời xa cha mẹ và anh em của mình. Giô-sép phải di cư ra nước ngoài xa lạ. Thứ ba, Giô-sép phải đương đầu với bước ngoặt cuộc đời. Hai giấc mơ trước đây của ông rất rõ ràng, nhưng trong quá trình đó nó đã bắt đầu trở nên phức tạp. Bị ném xuống hố, bị bán làm nô lệ và bị giam trong ngục tối. Nhưng chàng trai Giô-sép đã chiến thắng.

Thứ tư, Giô-sép phải tiếp nhận những xung đột trong gia đình. Ông đã mặc chiếc áo đầy màu sắc để phân biệt mình với các anh. Chỉ như vậy thôi anh độc chiếm tình yêu của cha. Nhưng cũng chính vì điều này mà ông đã phải rời khỏi vòng tay yêu thương ấm áp của cha mẹ. Thứ năm, Giô-sép phải đối mặt với những khốn khổ trong thân phận nô lệ. Trong hoàn cảnh là nô lệ, ngoài việc làm theo lời của những người chủ Ai Cập, ông không còn cách nào

khác. Dù phải sống trong cực khổ, chán nản với những suy nghĩ về gia đình và thân phận nô lệ, nhưng Giô-sép đã học được cách sống thông qua mọi khổ nạn. Một nô lệ có thể vươn lên đứng đầu trong xã hội không? Theo kinh nghiệm của Giô-sép, chúng ta thấy điều này là có thể. Trên thực tế, Giô-sép không chỉ sống sót mà còn được thịnh vượng mặc cho mọi khó khăn. Không có 'bí mật đặc biệt' nào về kỹ năng sinh tồn của ông, sự thành công của một nô lệ Ai Cập có thể được nhân rộng ở những nơi khác.

Giô-sép đã thể hiện một số đức tính giúp anh thành công ở nước ngoài, bất chấp vị trí thấp kém và bị gạt ra ngoài lề xã hội. Điều đầu tiên giúp ông thành công đó là tình kỷ luật. Người nô lệ trẻ tuổi này đã thể hiện tính kỷ luật trong mọi khía cạnh của cuộc sống: thuộc linh, thể chất, tình cảm, tinh thần, xã hội và tính thực tế. Kinh Thánh không nói gì về những bất tiện của Giô-sép nhưng chúng ta có thể thấy ông vẫn kiên định trong suốt 13 năm. Sự tận hiến thuộc linh của Giô-sép đã giúp cho ông trong việc đương đầu với hoàn cảnh thực tế. Dù cách xa

gia đình nhưng Đức Chúa Trời vẫn là trọng tâm trong đời sống của Giô-sép. Đức Chúa Trời ban phước cho mọi việc ông làm. Trong một vùng đất đầy hình tượng, đức tin, sự tin cậy và vâng lời của ông đối với Đức Chúa Trời đã được thể hiện rõ.

Giô-sép là một người tận tụy với Đức Chúa Trời, với những công việc mà ông được giao, với cả chủ và những người cai trị. Bất chấp những thời điểm khó khăn, Giô-sép tập trung vào công việc của mình. Lòng trung thành của ông với người lãnh đạo thể hiện rõ ràng qua những thời điểm khó khăn. Pha-ra-ôn đã công nhận sự cống hiến và phẩm chất của Giô-sép, cuối cùng đã bổ nhiệm cho ông làm tể tướng. Sau khi trở thành tể tướng, các anh em là những người đã bắt bán ông đã đến tìm ông, ông có thể bỏ tù họ nhưng ông đã làm hoà với gia đình. Hơn thế, ông còn rất hào phóng và nhạy cảm trước những nhu cầu của người khác, kể cả anh chị em của mình. Ông biết chắc chắn rằng Đức Chúa Trời đã khiến ông chịu đau đớn trước vì gia đình(Sáng thế ký 45:7). Vậy nên Giô-sép là người sáng suốt.

번역가자 빛샘



*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7면 '성경 속 이주민'을 네팔어로 번역하여 게재합니다.

वजिय र थैस्यको एक प्रतभा , सपना देखदै डायसपोरा योसेफ् (उत्पत्ति 50:18~21)

दासत्वको डायसपोरा सधैं अस्थिर परिस्थिति र प्रतिकूल परिस्थितिहरूको सामना गर्दछ। जोसेफ, जुन पुरानो नियममा रेकर्ड गरिएको सपना छ, उनी सानै उमेरदेखि धेरै परीक्षाहरूबाट गुज्रिएका छन्, तर अन्ततः इजिप्टको सर्वोच्च स्थानमा पुगे। यद्यपि, जोसेफको अनुभवलाई सबै डायसपोराका लागि खाकाको रूपमा प्रस्तुत गर्नु मूल्यतापूर्ण हुनेछ। यद्यपि, जोसेफको डायसपोराको रूपमा, यसले धेरै मानसिहरूलाई प्रेरित गर्न सक्छ जो परीक्षाहरू पार गर्ने र सफलता हासिल गर्ने कथामा रुचि राख्छन्।

जोसेफले दासको रूपमा तल्लो तहदेखि सबै इजिप्टमा नेतृत्वको सर्वोच्च स्थानसम्मका सबै अवरोधहरू पार गरे। जोसेफ, एक जवान सपना देख्ने, घर छोडेर दासको रूपमा जीवन बिताउने क्रममा कठिनाईहरूको झुलामा बाँच्न सकिने। पहिले, जोसेफले खतरामाथि वजिय हासिल गर्न सकिने। यूसुफका भाइहरूले तनिलाई खाडलमा फाले र मर्दियानीहरूलाई बेचे। उनको ज्यान खतरामा थियो, तर जोसेफले

जति। अन्ततः, उहाँ इजिप्टको उच्च-स्तरिय सरकारी अधिकारी पोटफिरको दास बने र मशहूर भए। दोस्रो, जबरजस्ती बसाई जोसेफको दास डायसपोराको यात्रा सुरु भयो। उनी आफ्नो प्यारो देशबाट नसकेका थिए र आफ्नो कम्फर्ट जोनबाट बाहिर थिए। यस प्रक्रियामा, उहाँ आफ्ना आमाबाबु र भाइबहनीहरूबाट टाढा भए। जोसेफलाई विदेशमा बसाई सन्तुष्टि पर्यो।

तेस्रो, जोसेफले जीवनका मोड र मोडहरूका सामना गरे। उनले विगतमा देखेका दुई सपना धेरै स्पष्ट थिए, तर प्रक्रियामा ती जटिल हुन थाले। खाडलमा फालिए, दासत्वमा बेचिए, र कालकोठरीमा कैद गरिए। तर यो जवान यूसुफ वजियी भए। चौथो, जोसेफ पारिवारिक कलहबाट पीडित थिए। उसले रंगीन लुगा लगाएको थियो जसले उसलाई आफ्ना भाइहरूबाट अलग गर्‍यो। उसले आफ्नो बुबाको मायामा कतिकाधिकार राख्थे। तर, यही कारणले उनलाई बुबा र आमाको मायालु हात र न्यानो हातबाट टाँदा हुनु परेको थियो।

पाँचौं, जोसेफले दास डायसपोराको रूपमा दयनीय अवस्थाको सामना गरे। दासत्वमा रहँदा, उनीसँग आफ्नो इजिप्टियन

मालकिहरूको अधिमा काम गर्ने बाहेक अरु कुनै बाटो थिएन। परिवार र दासताको विचारले निराश भएर जीवन बिताउन बाध्य भए तापनि जोसेफले सबै कठिनाईहरू मार्फत बाँच्न सकिने। के दासहरू समाजको शीर्षमा उठ्न सक्छन्? यो सम्भव छ भनी जोसेफको अनुभवले देखाउँछ। वास्तवमा, जोसेफ मात्र बाँचेका थिएनन् तर सबै बाधाहरू विरुद्ध सफल भएका थिए। उहाँ बाँच्नको लागि कुनै 'विशेष रहस्य' थिएन, र इजिप्टमा दास डायसपोराको रूपमा उनको सफलता अन्यत्र दोहोर्‍याउन सकिन्छ।

जोसेफले शत्रु समाजमा आफ्नो तल्लो र सीमान्तकृत स्थितिको बाबजुद पनि विदेशमा सफल हुने धेरै गुणहरू प्रदर्शन गरे। पहिलो, जोसेफलाई सफल बनाउने एउटा गुण भनेको अनुशासन हो। यो युवा नोए डायसपोराले जीवनका सबै पक्षहरूमा अनुशासन देखाउँछ: आध्यात्मिक, शारीरिक, भावनात्मक, मानसिक, सामाजिक र व्यावहारिक। जोसेफ आफैलाई के भयो भन्ने कुराको बारेमा बाइबल मौन छ, तर जोसेफ 13 वर्षभन्दा बढी समयसम्म स्थिर थिए। जोसेफको आध्यात्मिक भक्तिले वास्तविकताको सामना गर्न ठूलो मदद गर्‍यो। घरबाट टाढा भए तापनि

जोसेफको जीवनको केन्द्रमा परमेश्वर सधैं हुनुहुन्थ्यो। जोसेफले गरेका हरेक काममा परमेश्वरले प्रशस्त नतजिाहरू दिनुभयो। मूर्तिपूजाले भरिएको देशमा, उहाँको विश्वास, भरोसा र परमेश्वरप्रतिको आज्ञाकारिता स्पष्ट रूपमा देखाइएको थियो।

जोसेफ परमेश्वरमा, आफ्नो काममा, मालिक र शासक दुवै प्रतिसमर्पित मानिस थिए। कठिन समयको बाबजुद जोसेफले आफ्नो काममा ध्यान दिए। कठिन समयमा आफ्ना वरिष्ठहरूप्रति उहाँको वफादारी स्पष्ट थियो। फरिऊनले जोसेफको समर्पण र गुणहरू बुझे र अन्ततः उनलाई प्रधानमन्त्री नियुक्त गरे। जोसेफले प्रधानमन्त्री भएपछि आफ्ना भाइहरूलाई कैद गर्न सक्थे र उनलाई दासत्वमा बेच्न सक्थे, तर आफ्नो सम्पूर्ण परिवारसँग मेलमिलाप गरे। यसबाहेक, उहाँ आफ्ना दाजुभाइ तथा दिदीबहनीहरूलाई गायत अरूको आवश्यकताप्रति सहिष्णु र संवेदनशील हुनुहुन्थ्यो। उसलाई पक्का थाहा थियो कि परमेश्वरले उसलाई आफ्नो परिवारको अगाडि मिश्रमा ल्याउनुभएको थियो (उत्पत्ति ४५:७)। यसरी, जोसेफ विवेकी मानिस थिए।

번역가자 피터 김 선교사